커뮤니케이션 이론
2019년 15권 3호 5~45쪽
https://doi.org/10.20879/ct.2019.15.3.005

뉴스생산방법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유동저널리즘과 조정메커니즘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본 논문은 뉴스생산방법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다. 저널리즘 사회학이 지금까지 분석해온 저널리스트중심 생산방법과 조직중심 생산방법은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저널리스트중심 생산방법은 저널리스트의 '선택'을 본질로 한다. 저널리스트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관적 인식을 통해 뉴스를 생산한다. 뉴스는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중심 생산방법은 사회적 의미의 구성을 목표로 한다. 비선형성과 개인주의의 특성을 갖는 디지털 환경의 뉴스생산방법은 유동저널리즘에서 잘 나타난다. 유동저널리즘과 이를 구체화한 시스템 B에 대한 분석결과 유동저널리즘은 탈조직, 탈제도의 비선형 프로세스를 통해 '드러내기' '던져두기'의 생산방법을 적용한다. 뉴스생산방법은 각기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조정기제를 갖고 있다. 저널리스트중심 생산방법은 간주관적 객관화를, 조직중심 생산방법은 대안저널리즘을 조정기제로 삼는다. 본 연구는 유동저널리즘은 저널리즘 생태계 균형을 조정기제로 삼을 수 있음을 분석했다.

KEYWORDS 저널리즘 사회학, 생산방법, 유동 저널리즘, 선택, 구성, 표출

* sasskim@ssu.ac.kr

1. 서론

저널리즘은 자신이 전달하는 세계의 본질에 대한 지식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메이어(Meyer, 1991)는 저널리즘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엑스트룀(Ekström, 2002)은 저널리즘의 정당성은 세계의 본질에 대한 앎의 타당성, 앎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진실성, 나아가 앎의 진실 또는 허위 여부에 있지 않고 아는 방법의 정당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리즘 지식체계의 핵심은 뉴스생산방법에 있다는 것이다. 메이어(Meyer, 1991)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저널리즘이 독립된 지식체계로 인정을 받자면 적어도 세 가지의 방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보를 어떻게 찾는가 하는 정보확보 방법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찾아낸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분석방법의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이렇게 분석과 평가를 거친 지식 정보들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충족하는 생산방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저널리즘연구에 있어 뉴스생산방법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뉴스생산방법이 체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나아가 이런 체계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것도 보여준다. 물론 저널리즘 사회학 연구들은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이론을 통해 생산방법의 제도화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카르드(Picard, 2006)와 라이프(Ryfe, 2006)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조직적 생산양식에 의해 뉴스는 동질성을 갖는데 이는 저널리즘 공동체가 공유하는 표준화된 생산방법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저널리즘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런 생산방법들을 생산관행이라고 한다. 로리와 우(Lowrey & Woo, 2010)는 뉴스조직들이 뉴스생산의 방법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관행 요소들을 제도화한다고 지적했다. 생산관행의 제도화

란 사회화된 가정들이나 행위들로서 저널리즘 장 전체에 걸쳐 깊숙이 내재화된 것들을 의미한다(Ryfe, 2006). 이처럼 생산관행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주의의 설명은 뉴스생산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저널리즘 공동체 내부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환경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뉴스 파편화가 심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설득력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뉴스생산방법 연구는 두 가지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 저널리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뉴스조직이다(Reese & Bellinger, 2001). 조직중심의 연구는 뉴스조직의 생산관리를 주로 분석한다.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이론을 통해 많이 논의된 것처럼 이는 생산관행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특히 뉴스룸 내부의 뉴스가공과정에 주목한다. 취재기자와 간부의 관계(Lau, 2004)나 취재영역과 편집영역간의 관계(Hemmingway, 2004)에 대한 분석이 그런 것이다. 저널리스트중심 연구는 취재 및 기사작성의 기술(skills) 등 미시적인 요소를 다룬다. 저널리스트의 다양한 의사결정 요소를 분석한 번스(Burns, 2002)의 연구가 그런 예다. 민츠버그(Mintzberg, 1989)가 지적했듯이 전문가는 복잡한 환경을 다룬다.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과업은 그 성격을 쉽게 규정할 수 없으며 과업을 수행하는 태도도 전문가마다 다르다. 또 자기노동의 대체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차별성을 추구하는데 뉴스를 비롯한 미디어상품과 같은 창의상품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Picard, 2009). 그러나 조직과 개인중심의 생산방법은 결국 조직의 통제를 통해 통합된다. 상호갈등적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생산방법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같은 조직과 개인중심의 생산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뉴스소비가 전략적 생산시스템을 갖고 있는 조직중심의 기존 미디어를 우회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끊임없는 업데이트와 AI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개인 저널리스

트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생산방법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무엇보다 저널리즘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기반해 점점 유동화되는 미디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과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 생산방법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새로운 생산방법을 추구하는 경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뉴스생산방법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연구의 바탕으로서 지금까지의 저널리스트중심 연구와 조직중심 연구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주체, 생산방법, 생산목표를 중심으로 두 접근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유동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뉴스생산방법은 유동성 수용에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인 유동저널리즘의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유동저널리즘의 생산방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조직과 개인중심의 뉴스생산방법의 분석 유목인 생산자, 생산방법, 생산목표를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다. 넷째, 전통적 생산방법과 유동저널리즘의 생산방법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이의 해결기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생산방법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조정기제를 갖고 있음을 파악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통해 뉴스생산방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동저널리즘의 생산자, 생산방법, 생산목표 등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한계와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2. 전통적 뉴스생산방법에 대한 이해

뉴스생산방법은 저널리스트의 개인적 취재보도기술에서부터 뉴스조직과

저널리즘 공동체가 공유하는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저널리스트 수준의 생산방법은 불확정적이지만 조직, 공동체 수준으로 가면 관행화되고 제도화된다. 먼저, 저널리스트중심 생산방법에 관한 논의다. 초기 저널리즘 사회학 연구는 주로 이에 관한 것들인데 생산주체가 저널리스트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뉴스는 저널리스트가 만드는 것'(Gieber, 1964: p.173), '뉴스는 저널리스트가 채용한 방법의 결과'(Fishman, 1980: p.14), '뉴스는 저널리스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Cohn & Young, 1973: p.97)이라고 본다. 이런 인식들은 저널리스트는 궁극적으로 '이야기'로서의 뉴스를 만든다는 이해로 귀결된다(Tuchman, 1976: p.97). 저널리스트는 주관에 근거에 뉴스라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저자라고 보는 것이다.

리스와 볼린저(Reese & Ballinger, 2001)에 의하면 저널리스트의 생산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택이다. 뉴스선택은 무엇보다 뉴스밸류에 따라 이루어진다. 갈퉁과 루즈(Galtung & Ruge, 1965)는 빈도, 크기, 애매성, 의미, 예측성, 기이성, 계속성, 종합성 등의 복잡한 기준들을 제시했다. 또 다른 선택기제는 게이트키핑이다. 슈메이커(Shoemaker, 1996)는 게이트키핑을 수많은 메시지들을 몇 개로 줄여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선별, 추가, 보류, 배치, 걸름, 형태수정, 조정, 반복, 시의성부여, 지역화, 통합, 무시, 삭제 등의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한다(Barzilai-Nahon, 2008). 개입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화이트(White, 1950)는 게이트키핑이 뉴스선택 단계에 개입하는 편집장의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석했고, 맥넬리(McNelly, 1959)는 게이트키핑이 한 명의 간부가 아니라 다양한 생산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파악했다.

뉴스선택과 게이트키핑에 동원되는 방법의 다양성이나 개입주체의 복잡성은 저널리스트중심의 생산방법이 분화적 속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저널리스트 창의성이 더해지면서 보다 복잡해진다. 린덴

(Lindén, 2017)은 저널리스트는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즉흥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페로우(Sparrow, 1999)와 턴스탈(Tunstall, 1975)은 이런 복잡성 때문에 저널리스트의 창의성과 같은 요소는 제도주의의 프로페셔널리즘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관행화나 제도화 등으로 표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의 바탕에는 저널리스트의 생산방법이 암묵지에 근거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폴라나이(Polanyi, 1967)는 암묵지를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체화(體化)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라고 이해했다. 저널리스트의 암묵지는 개인의 주관성, 경험, 창의성 등에 의해 형성된다. 숀(Schön, 1983, 1986)은 편집국의 선배가 후배에게 말로 자신의 경험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널리스트와 같은 프로페셔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함의된 것을 명시적으로 조직해서 설명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지식이 암묵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널리스트 지식의 암묵지 특성은 이들의 주관적 접근이 분화적 생산방법의 주된 요인임을 보여준다.

생산방법의 분화적 속성은 저널리스트의 자율성 강조로 이어진다. 번스(Burns, 2002)의 분석처럼 뉴스생산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과 이에 대한 의사결정 순간들의 조합인데 이를 다루는 저널리스트의 분화적 태도를 억압할 경우 뉴스생산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때문에 저널리스트는 조직통제의 단순화를 요구한다(Tierney & Farmer, 2004).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가로서 보다 큰 자율성과 권력감을 느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Thomas & Velthouse, 1990). 슈드슨(Schudson, 1989)의 저널리즘 사회학 논의를 비롯해 많은 연구들은 이런 관점에서 조직, 조직을 대신하는 간부 등 생산과정을 지배하는 요소들이 뉴스생산을 통제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1980년대 이후 연구초점은 개인에서 개인의 통제기제로 이해됐던 조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리스와 볼린저(Reese & Ballinger,

2001)는 '영향력의 위계'(hierarchy of influences) 개념을 제시하면서 뉴스생산에 대한 영향력이 저널리스트에서 관행, 조직, 조직외부 압력세력, 사상 등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기틀린(Gitlin, 1978)이 말했듯이 뉴스생산은 구조로서의 뉴스조직과 행위로서의 저널리스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상호작용의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조직중심 연구는 구조적 속성이 뉴스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것이라고 하겠다.

뉴스생산의 중심이 조직으로 이동한다고 보는 근거는 뉴스가 '구성되는 것'(constructed)이라는 새로운 인식이다. 슈드슨(Schudson, 1989)은 많은 저널리즘 사회학 연구들이 포착한 두 가지 구성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하나는 뉴스스토리 차원에서 뉴스를 구성하거나(constructing news) 뉴스를 만드는 것이고(making news), 다른 하나는 뉴스의 의미차원에서 현실을 사회적으로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하는 것이다. 전자는 뉴스스토리가 저널리스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저널리스트중심 구성을 말한다. 후자는 뉴스를 사회적 의미의 구성이라고 보는 사회구성주의 입장인데 이때 생산주체는 뉴스조직이다. 맥네어(McNair, 1998)가 뉴스는 조직적 생산의 결과라고 말한 것도 뉴스구성이 조직적 차원의 행위임을 지적한 것이다.

조직중심 연구로의 전환을 이끈 보다 중요한 계기는 뉴스생산이 독특한 생산프로세스라는 이해를 갖게 된 것이다. 리스와 볼린저(Reese & Ballinger, 2001)는 뉴스는 '공장생산되는 상품'(Manufactured product)이라고 말했다. 뉴스생산이 조직중심의 독특한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프로세스는 조직차원의 처리와 가공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뉴스생산은 바스(Bass, 1969)의 구분처럼 크게 뉴스룸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집(gathering)과 뉴스룸 내부의 처리(processing)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뉴스룸 내부의 처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생

산메커니즘을 프로세스라고 보는 것이다. 바스(Bass, 1969)의 지적처럼 뉴스조직의 통제가 집중되는 처리프로세스는 간부와 편집영역이 개입한다.

라우(Lau, 2004)의 자기생성적 의미(self-deriving meaning)의 객관화과정 논의처럼 현장취재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대해 간부는 간주관적 객관화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데스킹'이라고 불리는 프로세스는 간부의 개인적인 게이트키핑 수준을 넘어서는 복잡한 메커니즘이다. 뉴스조직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 안에서 정기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해야 한다. 조직은 간부를 내세워 저널리스트의 생산행위를 통제하면서 뉴스품질과 생산과정을 관리한다. 뉴스조직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상품생산을 위한 시장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Habann, 2000). 이는 조직중심의 뉴스생산방법이 저널리즘의 상업성 강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프로세스는 고도로 복잡하게 작동하는 뉴스생산의 조직적 조화와 조정 체제인 것이다(Reca, 2006). 조직중심의 조정과 통제, 관리 등의 처리프로세스는 저널리스트중심의 분화적 속성과 정반대되는 융합적 속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처리프로세스인 편집 역시 조직차원의 융합적 접근이다. 헤밍웨이(Hemmingway, 2004)는 취재영역과 편집영역의 경쟁을 분석하면서 편집행위를 취재영역이 구축한 주관적 이해를 무화시키는 전복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취재영역이 구축한 시공성 재구성을 붕괴시키고 자신의 시공성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편집의 이런 태도는 취재영역의 생산결과들을 종합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최종생산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이다. 취재영역의 개별 저널리스트들의 주관적 인식은 최종상품이라는 조직차원의 전략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직중심의 생산방법이 갖는 융합적 속성은 시장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저널리스트중심과 조직중심의 뉴스생산방법 비교

생산자	생산행위	생산목표	속성
저널리스트	선택	개별 스토리텔링	주관적 분화성
조직	구성	사회적 의미구성	시장지향적 융합성

저널리스트중심의 분화적 생산과 조직중심의 융합적 생산 서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쿤(Kuhn, 1959)은 분화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분화적 사고는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때문에 저항적 속성을 갖고 있다. 반면 융합적 사고는 합의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 체제를 추구하며 전체를 지배하려는 지배적 사고방식을 구축하려고 한다. 주목할 것은 쿤(Kuhn, 1959)은 둘은 필수적 긴장을 통해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분화적 의지와 융합적 의지 사이에 경계지점에서 긴장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양자의 균형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정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저널리스트중심과 조직중심의 두 생산방법은 실제 생산과정에서 통합된다. 최종뉴스는 필수적 긴장의 통합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유동성

1) 디지털 유동성

리스와 볼린저(Reese & Ballinger, 2001)는 뉴스생산방법이 개인중심에서 조직중심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조직중심 생산방법의 유효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멕네어(McNair, 2003)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에 따라 개별 저널리스트나 뉴스조직이 뉴스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를 맞이했고 이때문에 저널리즘은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는 이런 혼란의 본질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유동성(liquidity) 에 있다고 본다.

바우만(Bauman, 2000)은 유동성을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의 근거 없음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유동성의 핵심이 불확실성에 있음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은 삶의 근거를 부단히 붕괴시키고 사람들을 이동하게 만들면서 유동성을 초래한다. 바우만(Bauman, 2011)은 불확실성은 정원에 뿌리를 내린 식물과 함께 정주하는 정원사를 언제나 움직여야 하는 사냥꾼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사회의 유동성을 축발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사는 특정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집중하지만 사냥꾼은 매일 매일의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해야 하고 이를 멈출 수 없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런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유동성을 보다 강화시킨다.

디지털 유동성은 비선형성과 개인주의의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먼저 비선형성이다. 터너(Turner, 2003)에 의하면 유동성의 불확실성은 근대성의 특징 중 하나인 선형성의 붕괴와 맞닿아 있다. 그는 근대 선형성의 전형적인 예로 맥도널드의 생산과 소비 프로세스를 들었다. 소비자는 정해진 줄에 서서 제한된 범주 안에서 선택하고 줄을 따라 주문한 음식의 출고를 기다린다. 주문에서 생산, 배달에 이르기까지 선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선형성은 관료주의나 행정제도와 함께 근대 사회체제를 움직이는 작동원칙의 하나다. 단일한 위계적 명령체계에 기반한 근대 권력의 체계는 선형성에 기반한다. 이것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비선형성은 0과 1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본질이다. 비선형성은 신축성, 이동성, 다양성, 개방성 등을 바탕으로 객관주의 세계인식의 전제를 붕괴시킨다. 객관주의는 외부세계에 독립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이는 완벽한 기술(description)을 통해 재현가능하다고 믿는다(Guba & Lincoln, 1994). 그러나 비선형성으로 인해 객관주의가 전제로 삼는 독립된 또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실체가 있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인식하고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Wall, 2005).

디지털 유동성의 비선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웹의 세계다

(Bauman, 2007, 2011). 각각의 웹사이트는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화, 규제, 원칙을 갖고 있다. 웹의 세계는 자신만의 진입과 출구 지점을 갖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작동된다. 소비자들은 복수의 웹사이트들을 경유하면서 정보에 접근한다. 웹 세계의 비선형성은 신축성을 낳고 이 신축성으로 인해 웹세계는 유동성을 갖게 된다. 월(Wall, 2005)의 지적처럼 웹의 유동성은 근대사회의 질서를 구축하는 규제-표준화-선형성에 대해 탈규제-차별화-비선형성 등의 기반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비선형성은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는 탈제도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중심 생산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다. 터너(Turner, 2003)는 유동성 사회의 신축성, 불확실성, 비결정성, 차별성 등이 개인주의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주의는 소비자의 생산자화를 통해 구체화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직접 뉴스생산을 가능케 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를 해석하고 자기목적에 맞게 재목적화한다(Coleman, 2005). 어느 것이 진본인지 알 수 없고 또 진본의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디어의 불확실성이 초래된다(Bolter & Grusin, 2000). 누구나 미디어를 생산하는 개인주의는 진본소멸을 가져오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또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로 진화한다. 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개인공간이 창출되는 것이다.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미디어를 소비하고 동시에 생산한다. 그러나 누구나 어디서나 테크놀로지에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 덕분에 고립되지만 동시에 미디어를 통해 다른 개인공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카스텔스(Castells, 2009)가 지적한 것처럼 개인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성은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라는 초사회성을 만들어낸다. 개인들끼리의 네트워크는 개인의 미디어 몰입을 창출한다. 파인과 길모어(Pine II &

Gillmore, 1998)의 논리처럼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면 몰입적 경험을 얻는다. 이런 맥락에서 듀제(Deuze, 2006a)는 일상화된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이에 몰입된 개인의 모든 미디어 활동은 유동성을 띤다고 보았다.

2) 유동저널리즘

요컨대 디지털 유동성의 불확실성은 탈제도, 탈조직, 진본소멸, 미디어 몰입 등에 의해 초래된다. 이는 당연히 전통적 뉴스생산방법의 수정을 요구한다. 중요한 생산관행의 하나인 객관주의를 보자. 이는 주관적 가치평가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Schudson, 1978) 앞서 본 것처럼 비선형성은 이의 전제조건을 무너뜨린다. 고정된 실체도 없고 이를 인식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객관주의를 수행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Janowitz, 1975)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의 위상을 붕괴시킨다. 사실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의 약화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장 이전에 시작되었다.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을 다른 집단들과 분리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Hardt, 1998). 또 다양성이나 차이를 숨기고 대신 표준화와 동질성을 추구하는 전문지식을 강조함으로써 창의성과 지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Glasser, 1992). 프로페셔널리즘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할린(Hallin, 1992)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저널리즘의 시대는 1980년대 초 저널리즘의 상업성이 사회전체를 조망하는 저널리즘의 총체성을 무너뜨리면서 끝났다고 진단했다.

객관주의를 비롯한 전통적 생산관행과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의 붕괴는 디지털 유동성과 연결된 유동저널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었다. 이들의 역할공간이 축소된 자리를 새로운 생산주체들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듀제(Deuze, 2007)가 지적했듯이 이들은 시민저널리스트,

블로그와 같이 신축적이고 다기능적이며 고도의 이동성을 가진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시민들은 본래 자신의 뉴스를 직접생산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할린(Hallin, 1992)은 뉴스가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면서부터 시민들은 자신의 뉴스를 스스로 만들고자하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해적라디오, 대안미디어, 운동저널리즘를 비롯해 디지털 시대의 시민저널리스트나 유튜브 뉴스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다 프리랜서라는 중간적 생산자는 시민의 직접생산을 제도권 저널리즘과 연결한다. 저널리즘의 황금기였던 20세기에 이런 도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Hallin, 1992) 사회유동성의 강화는 이런 현상유지에 제동을 걸었다. 바우만(Bauman, 2000)은 저널리즘이 시장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유동 근대성(liquid modernity)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끊겨버렸고 이는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할린(Hallin, 1992) 역시 뉴스의 비즈니스화는 조직중심의 생산방법을 강화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비자 요구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국 저널리즘의 사회적 의미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유동저널리즘은 이처럼 전통 저널리즘이 유동성에 의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비선형성과 개인주의에 의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유동성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비선형성이 창출하는 뉴스생산의 탈제도성과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에 의한 미디어 몰입 등은 전통 저널리즘의 생산방법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듀제(Deuze, 2007)는 디지털 유동성에 대응하고 새로운 생산세력들을 뉴스생산에 수용하기 위해 보다 신축적인 생산방법을 갖고 있는 저널리즘을 유동저널리즘이라고 정의했다. 칸톨라(Kantola, 2013)는 유동저널리즘은 보다 이동성을 갖고 신축적이며 가볍고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반영적 근대성을 구현하는 저널리즘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유동저널리즘이란 디지털 유동성에 의한

복잡한 불확실성을 내포한 사회적 조직적 유동성을 반영하는 저널리즘이라고 하겠다.

뉴스생산은 본래 유동성을 내재하고 있다. 해밀턴(Hamilton, 2004)이나 찬-옴스테드(Chan-Omlsted, 2006)에 의하면 뉴스는 길이, 스타일, 초점 등 뉴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별 속성들로 구성된 복수영역 상품(multi-dimension product)이다. 저널리스트는 뉴스원재료인 정보요소들을 생산과정에서 독립된 개별모듈로 다룬다. 뉴스는 개별 속성의 모듈들을 특정한 전략아래 조합한 것이다. 이런 전략적 조합때문에 뉴스생산은 유동성을 띠게 된다. 동일사건과 현장을 취재하더라도 기사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다. 김사승(2012)은 이것이 뉴스공급의 불안정성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뉴스는 또 소비자들이 소비경험을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경험재다(Chan-Omlsted, 2006; Reca, 2006). 경험재는 소비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수요예측이 어려워 시장의 변덕이 심할 수밖에 없어 소비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Reca, 2006). 이처럼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은 뉴스생산의 유동성의 중요한 속성이다. 뉴스조직은 조직적 조화와 조정을 통해 이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이라는 뉴스생산 유동성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뉴스생산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조직중심 생산방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때문에 생산의 유동성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앤더슨 등(Anderson, Bell, & Shirky, 2012)이 주장한 후기산업주의 저널리즘(post-industrial journalism)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뉴스생산은 거대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생산체제, 생산조직, 그리고 다수의 저널리스트에 기반을 두는 생산지향적 저널리즘인데 이를 산업모델(industrial model) 저널리즘이라고 부른다. 후기산업주의 모델은 생산기계 중심의 규범으로 조직되는 뉴스생산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저널리즘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적 생산에 기반을 두는 수집-

팩키징-전달에 이르는 수직적 통합, 편집을 통한 수평적 통합의 산업모델 생산메커니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이를 우회해버리기 때문이다. 또 광고를 콘텐츠와 분리시키고 추천이라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형성한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뉴스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 생산의 혼란을 초래한다. 소비의 혼란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확대되면서 일어난다. 콜맨(Coleman, 2005)의 논리대로 소비자의 개별적 욕구가 끊임없이 반영되는 영구재현에 의해 가치가 창출된다. 뉴스의 상품가치는 상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양자간 상호작용의 지속성은 소비자 욕구를 끊임없이 진화시키면서 소비의 불확정성을 낳는다. 디지털 유동성은 이처럼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유동저널리즘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다.

불확실성의 유동성 반영과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저널리즘은 뉴스조직과 개별 저널리스트 모두의 변화를 요구한다. 칸톨라(Kantola, 2013)는 유동저널리즘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따라 뉴스조직이 재구조화되고 저널리스트들은 기존의 생산방식과 규범적인 이상을 수정하고 재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야콜라 등(Jaakkola, Hellman, Koljonen & Väaliverronen, 2015)은 다양한 주제영역의 저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저널리즘의 유동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칸톨라(Kantola, 2013)의 지적처럼 변화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뉴스조직 내부에서도 변화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유동저널리즘이 그 본질을 구현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동저널리즘의 구체적 생산방법을 제시한 캐나다의 공공정책포럼(Public Policy Forum, 2017)의 논의를 분석해 유동저널리즘이 실제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포럼은 전통적인 뉴스생산 시스템

을 시스템 A로, 유동저널리즘의 생산시스템을 시스템 B로 지칭했다. 2장의 전통 저널리즘 생산방법의 분석유목인 생산자, 생산방법, 생산목표 등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4. 유동저널리즘의 생산방법

1) 생산자

콜리요넨(Koljonen, 2013)과 칸톨라(Kantola, 2013)는 전통적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와 유동 저널리스트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콜리요넨(Koljonen, 2013)이 제시한 저널리스트들의 뉴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자〈표 2〉.

표 2. 저널리스트 인식의 차이

구성요소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	유동 저널리스트
지식 정향성	뉴스배포자, 객관성. 경험주의	콘텐츠 생산자, 주관성
소비자 정향성	복종적 시민에 대한 봉사자, 민주주의 작동위한 공적 이익관련 정보	능동적 소비자에 대한 봉사자, 일상생활추구하는 개인을 위한 도움과 가이드
권력 정향성	갈등적 기자, 합의추구적 진실, 수동적 관찰자	회의적 감시견 의심에 기반한 대치, 적극적 개입자
시간 정향성	가장 최근의 과거 보도, 의제추수	미래 예측, 의제설정
윤리 정향성	자기규제의무, 룰의 보편성	신중한 개인, 룰의 상대성

* Koljonen (2013), p. 143.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는 객관성을 토대로 뉴스를 구성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이익과 공익에 봉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한다. 그렇다보니 지나간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수동적 태도를 갖는다. 유동 저널리스트는 사뭇 다르다. 자신의 주관성을 뉴스에 개입시

키고자 하며 사회 전체의 의미보다 시민의 일상생활 가이드 역할을 주장한다. 권력에 대해서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며 권력과 대치하거나 개입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벌어질 사건을 예측해서 의제를 설정해서 접근하는 미래지향적 취재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저널리스트의 개인윤리의식을 주장하며 외부로부터의 윤리적 통제를 거부한다. 유동 저널리스트가 기존의 저널리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칸톨라(Kantola, 2013)도 유동 저널리스트는 전문성에 부정적이며 비판적이고 반제도적인 인식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태도는 뉴스조직과의 관계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유동 저널리스트는 뉴스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존재하지만 어느 경우든 기존의 조직관계와 다른 관계방식을 갖고 있다. 디지털 유동성의 탈제도적 탈조직적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듀제(Deuze, 2007)는 뉴스조직 내부의 유동 저널리스트는 세 가지 변화에 직면한다고 보았다. 첫째, 저널리스트는 신축적이어야 하고 멀티스킬을 가져야 한다. 제도화된 생산관행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둘째, 개별 저널리스트의 자율성 축소경향이다. 뉴스조직의 생산전략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셋째, 증가하는 직무순환과 직업불안정성의 증가현상이다. 전문성 강화가 어렵고 이로 인해 직업안정성은 약해진다. 이런 변화들은 뉴스생산 환경과 조건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요구조건이다. 전문성, 전문성을 내세운 자율성, 직업 안정성 등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가 누려온 조건들과 전혀 다르다.

표 3. 저널리스트 뉴스생산 행태의 차이

영역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	유동 저널리스트
노동 경로	고용 확실성, 고정적 장기 노동	고용 불확실성, 단기적 부정기적 계약 노동
노동 관행	자율적, 자기주도적	팀활동, 중앙계획 및 통제 종속적
뉴스기준	사회 관련성	재미
뉴스소스 관계	기존 질서, 장기적 관계, 내부소스	임시적 관계, 소스로부터의 거리
상업주의 관계	인포테인먼트와 타블로이드 비판적	스토리텔링, 타블로이드 기준 추구

* Kantola (2013), p. 613

이 문제는 뉴스조직과 계약을 맺고 뉴스를 생산하는 조직외부의 유동 저널리스트에게도 일어난다. 칸톨라(Kantola, 2013)의 분석을 보자 〈표 3〉. 노동조건부터 다르다. 부정기적 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동 저널리스트의 직업안정성은 조직에 속한 저널리스트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따라 생산행태도 달라진다. 계약고용의 주체인 조직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저널리스트의 자율성을 주장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대신 조직의 구속에서 벗어나므로 탈제도적 생산방법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보다 재미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취재원관계도 다르다. 기존 질서 안에서 주요 기관의 내부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관계를 통한 밀착된 취재원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임시적 관계와 소스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추구한다.

공공정책포럼(Public Policy Forum, 2017)의 시스템 B가 제시하는 유동저널리스트를 보자. 첫째, 생산자 전문성이다. 시스템 A 생산자의 전문성은 개인전문성과 조직전문성으로 구성된다. 개인전문성은 저널리스트의 지식과 취재보도의 전문성이다. 이는 '정보선택과 정보위계 결정' 즉 중요한 이슈를 골라주는 선택성과 중요성의 순서를 정해주는 위계성을 부여해 정보의 부가가치를 구성함으로써 뉴스가치를 창출한다. 여기에는 '게재전 확인' '편집자 게이트키퍼'라는 뉴스조직 내부의 간주관적 객관화 통제라는 조직전문성이 개입한다. 시스템 A의 생산자 전문성은

다양한 생산자들이 생산에 개입하는 '엘리트 통제'의 성격을 띠며 뉴스생산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시스템 B의 생산자 전문성은 정보수집 전문성이다. 시스템 B가 필요로 하는 정보수집자는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 게이트키퍼' '검색엔진' '패키저' 등 틈새뉴스 생산자에서부터 정보수집 행위만 하는 조직, 포털과 같은 플랫폼, AI과 같은 프로그램이 이르기까지 뉴스조직 내외부 어디에나 존재하며 기계도 포함한다. 전문가는 물론 '이용자' '개입적 소비자' '피더 소비자'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는 소비자들도 이에 포함된다. 뉴스조직 소속의 시스템 B 생산자는 외부생산자들을 다룰 수 있고 이들과 효율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의 정보수집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스템 A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을 조직소속 엘리트의 의미구성 전문성이라면 시스템 B는 정보수집에 초점을 맞춘 탈조직적 정보수집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생산자 노동가치다. 시스템 A는 전략적으로 정제된 편집을 제공하고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들에 특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코드작업을 함으로써 외부에서는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실마리에서 뉴스상품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있다. 정보를 뉴스로 가공하는 것이 생산활동의 핵심이다. 시스템 B는 제한된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하는 시스템 A의 폐쇄적 정보수집 방식에 회의적이다. 빅데이터를 비롯해 뉴스원재료 가치를 갖는 데이터들이 도처에 편재해 있어 출입처 외부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다 많이 수집할 수 있다. 특정한 정보가 아니라 많고 다양한 정보가 중요하다. 때문에 누가 수집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수집하는가가 생산자 노동가치의 기준이 된다. 정보수집기능을 뉴스조직 내부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AI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의 분석은 유동저널리즘 연구자들이(Deuze, 2007; Kantola, 2013; Koljonen, 2013) 공통적으로 지적한 유동저널리즘 생산방법의 탈조직, 탈제도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조직 또는 조직소속의 저널리스트

가 생산을 통제하는 제약적 생산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생산요소들을 생산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생산자 정체성을 조직의 영역안에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유동저널리즘의 본질인 불확실성의 유동성을 반영하는 효과를 낳는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생산자들은 도처에 편재한 데이터중심의 정보수집을 통해 불확실성의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생산방법

시스템 B 생산방법은 앞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유동성의 논의에서 분석한 개인주의와 비선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먼저 개인주의 생산방법 특성이다. 칸톨라(Kantola, 2013)는 개인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을 개인주의 생산방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유동성을 가져다주는 대표적 요소의 하나인 분산플랫폼 환경은 속보를 통한 노출경쟁을 촉발해 언제나 오보의 위험을 수반한다. 시스템 B는 오보 등 정보의 불완전성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런 생산방법은 관련자의 규모때문에 파장이 확산되는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는 문제가 된다. 오류의 수정만으로 파장을 해결하기 어렵다. '포스팅 후 내버려둠', '포스팅 후 확인' 또는 '게재 후 수정'의 생산방법은 뉴스대상이나 소비자가 사회나 시민이 아니라 보다 작은 규모의 이슈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는 개인주의 생산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개인주의 생산방법은 팩트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팩트를 다룰 때 '공유', '단순전달', '좁고 얕은 접근', '표준준수' 등의 태도로 접근한다. 단순정보제시가 핵심이다. 팩트의 정확성이나 진실보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팩트를 선호한다. 이런 수준의 팩트들은 특정 이슈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수집된 것이 아니므로 특정 이슈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하기 어렵다. 대신 생산자 개인의견의 배경정보 수준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팩트보다 의견, 사실과

의견의 혼합에 더 관심을 가진다. 팩트에 대한 이런 태도는 의견중심기사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칸톨라(Kantola, 2013)는 유동 저널리스트가 개인의견 개진과 자기주장 제시에 거리낌이 없는 것은 뉴스조직이 고민하는 상업성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개인주의 생산방법은 관행에서 벗어난 생산방법의 시도로 이어진다. 스토리텔링과 같이 기존 저널리즘에서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기사작성법을 동원하는 것이 그런 예다. 또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동원해 개인의 의견을 뉴스로 구성해내고자 한다. 결국 생산방법의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어 생산방법의 관행화나 제도화가 어려워진다. 듀제(Deuze, 2007)의 지적처럼 뉴스생산의 관행이 공고하게 구축되기 전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생산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으로 저널리스트의 생산방법과 생산행위들이 더 빨리 변해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 생산방법은 생산방법의 파편화, 개별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비선형적 생산프로세스다. 시스템 A의 생산프로세스는 시간적 순차성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과 수단을 요구하는 단계들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 따라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진행되는 선형적 프로세스다. 칼슨(Karlsson, 2012)의 설명에 의하면 이에 비해 유동 저널리즘은 변덕스럽고 지속적이며 참여적이고 복수양식적이며 상호연결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다른 소스들이나 문서, 다른 조직들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고 특정한 형식을 갖지 않으며 지속적 변화를 겪는 비선형의 무규칙한 프로세스다.

비선형 프로세스는 각 생산단계들의 경계가 무너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을 말한다. 루블레스키와 로차(Rublesck & Rocha Da Silva, 2012), 위드홀름(Widholm, 2016)이 지적했듯이 비선형적 프로세스는 생산방법의 유동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서 뉴스조직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화된 생산관행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생산프로세스에서 뉴스조직의 통제가 사라지는 공간에는 다른 생산방법이 들어서게 된다. 소

셜 저널리즘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백달(Baekdal, 2009)은 소셜 저널리즘을 새로운 뉴스소스,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관계, 소비자에 의한 생산흐름 통제 등 새로운 성격의 생산방법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김사승(2017)은 이를 생산과 소비 일치의 생산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수집에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 B 생산프로세스에서는 저널리스트의 생산행위의 의미는 약화되고 대신 정보라는 자원의 의미가 커진다. 생산프로세스는 생산자 행위와 자원의 관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Crowston, 2003; Malone & Crowston, 2003). 시스템 A와 같은 선형적 생산프로세스는 행위와 자원이 1대1의 관계인 순차성 프로세스다. 여기서는 각 생산단계들의 성격과 순서가 정해져 있다. 뉴스조직의 계획과 이를 수행하는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이라는 행위가 우선되며 이의 결정에 따라 자원을 수집하게 되는 행위중심적 프로세스다. 때문에 생산행위의 관행화를 통해 이런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시스템 B는 자원중심적이다. 보다 많은 자원을 수집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공급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를 자원공유형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행위와 자원이 서로 제약하는 1대1의 순차성 프로세스와 다르다. 자원수집 효율성을 강조하므로 생산행위 관행화의 필요성도 낮아진다.

개인주의, 비선형성의 생산방법은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미를 갖는다. 디지털 유동성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생산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뉴스소비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데 탐사보도나 심층취재, 분석과 같은 결정론적인 최종상품의 생산, 즉 높은 수준의 생산으로 대응할 수 없다. 때문에 유동저널리즘의 생산방법은 단순정보의 제시와 같은 낮은 수준의 생산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루는 의제도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 저널리즘과 달리 영향범위가 가능한 낮은 수준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역시 낮은 수준의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3) 생산목표

할린(Hallin, 1992)은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의 전성기를 저널리즘의 '고도 근대성'(high modernism) 시대라고 불렀다.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는 독점적 뉴스생산자의 위상을 차지하면서 전문성에 기반한 생산방법을 내세웠다. 이들은 권력에 대한 저항적 비판, 현상에 대한 해석, 정보의 배포(Weaver & Wilhoit, 1986)를 통해,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시민의 의사결정을 위한 해석을 제공하고(Janowitz, 1975), 감시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참여를 동원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Norris, 2000)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스템 A는 이를 위해 사건의 파장이나 의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공적 이슈를 '균형' '공익성' 등의 기준을 통해 접근하고자 했다. 할린(Hallin, 1992)이 말한 것처럼 사회통합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저널리즘은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지식을 생산하고자 했다. 고도 근대성의 시대는 이에 대한 사회적 확신이 존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동성은 저널리즘에 대한 이런 믿음을 무너뜨린다. 듀제(Deuze, 2006a)에 의하면 유동 사회의 등장으로 조직적 종교, 핵가족, 프로페셔널 저널리즘, 근대적 민족국가 등과 같은 근대적 사회, 경제, 정치 제도들이 기든스(Giddens, 2002)가 말한 것처럼 '속이 파여진 조개'(hollowed shell)와 같이 변해버린다. 듀제(Deuze, 2006a)는 그 결과로 저널리즘은 소비자없는 뉴스상품을 생산하고 효과없는 뉴스를 전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저널리즘 영향력이 약화시킨다. 디지털 유동성 환경에서는 마노비치(Manovich, 2001)의 지적처럼 저널리즘의 중재를 거부한 채 모든 사람이 타인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한다. 월(Wall, 2005)은 객관주의를 내세우는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이

최종결정하는 뉴스의 자리를 어떤 규범에도 얽매이지 않는 개별 소비자들이 내놓은 파편화된 해석이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사회현상들을 직접 해석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분산화 파편화된다.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의 모든 현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급격하게 퍼져나간다. 유동 미디어의 몰입성은 모든 사람들을 유동적 삶의 불확실성으로 함몰시킨다. 저널리즘이 사회통합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민이 저널리즘을 외면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카스텔스(Castells, 2000)가 말한 것처럼 '충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ry)을 근거로 하는 저널리즘의 사회통합 시스템으로서의 가치는 소비자 파편화로 인해 그 기반이 사라진다. 개인의 파편화된 해석, 직접 해결 움직임은 공유가치를 줄이고 개별 가치를 강화시키면서 가치의 분산화를 가속화한다.

유동 저널리즘의 개인주의 생산방법은 이런 변화를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시스템 B는 독자들이 읽고 공유하고 좋아할만한가를 뉴스기준으로 삼는다. 뉴스이슈는 소비자의 스타일과 기호에 적합해야 한다. 소비자 맞춤화를 추구하는데 이는 개별적 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얻어진다. 소비자의 파편화된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다양성 가치의 구현을 생산목표로 삼는 것이다. 시스템 B는 새로운 민주주의란 다양성 가치의 충족을 통해 구현된다고 본다. AI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성격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체성의 생산자를 생산에 개입시키고 낮은 수준의 뉴스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유동성에 대응하는 유동저널리즘의 생산방법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목소리를 보여주는 '표출'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소비자없는 뉴스, 즉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유동저널리즘의 한계와 조정기제

어떤 유형의 생산방법이든 한계는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널리스트 중심 생산방법은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의 선택에 중점을 둔다. 문제는 저널리스트의 주관성이다. 조직중심 생산방법은 뉴스의 구성을 위해 전략적 생산을 추구하지만 상업성이 문제가 된다. 전자의 문제는 간부와 편집영역에 의한 간주관적 객관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후자는 뉴스조직 외부의 대안저널리즘이나 시민저널리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생산방법들은 각기 조정기제를 갖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유동저널리즘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 어떤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제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유동저널리즘은 단순정보제시와 의견중심기사의 생산을 내세운다. 이는 얼핏 발생기사나 의견기사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발생기사는 현장 취재기자의 전문가적 선택이 개입하지만 단순정보제시는 이런 개입이 없는 정보의 단순한 '드러내기'다. 전통 저널리즘이 현실세계를 재현하면서 세계 이해에 개입하는 것과 달리 이는 소비자 앞에 세계를 드러내는 것에서 그친다. 의견중심기사는 생산자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힐러(Hiler, 2002)가 제시한 발생기사-분석기사-의견기사로 이어지는 뉴스의 라이프사이클과 무관하다. 발생기사를 통한 팩트의 축적,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의견기사가 아니다. 생산자의 인식에만 의존한 채 의견을 내놓는 '던져두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드러내기'나 '던져두기' 모두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필요성을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 맡긴다. 저널리스트중심의 '선택', 조직중심의 '구성'의 생산방법에 비해 유동저널리즘의 개인주의 생산방법의 '표출'은 '드러내기' '던져두기'의 생산방법인 것이다.

유동저널리즘의 생산방법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역시 고민해야 할 부

분들이 있다. 위엔호벤(Wijnhoven, 2001)은 정보상품 논의에서 뉴스유형에 따라 시장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에 구분에 의하면 뉴스와 같은 정보상품은 대중재, 전문재, 특화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중재는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적 성격을 갖고 있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동질성을 지닌 상품이다. 전문재는 생산자의 전문성이 개입되는 상품이다. 특화재는 소비자의 특정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이다. 대중재에 해당하는 뉴스유형은 발생기사인데 이의 주재료인 팩트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질을 갖고 있다. 분석기사와 의견기사는 전문재에 해당하며 대중재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질을 갖고 있다.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에 기반한 관점과 이에 적합한 팩트의 수집을 요구한다. 소비자도 이를 이해할 수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특화재는 소비자에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정보상품이다. 정보의 내용과 소비자의 필요성이 1대1의 관계를 가질 때 자산가치가 형성되는데 이는 대게 소비자 맞춤형, 소비자 주문형 정보상품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상품에 따라 시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중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순수시장이며 소비자의 이해관계정도가 낮다. 소비자의 필요성과 정보 사이의 일치성이 낮다. 전문재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 사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있는 시장이다. 이런 상품을 필요로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보필요성과 정보 사이의 일치성이 높다. 특화재는 소비자와 정보가 1대1의 직접관계를 갖는 시장이다. 소비자의 정보혜택 차별화를 추구하며 소비자 정보필요성과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는 시장이다.

단순정보제시의 소비자는 뉴스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심이 높지 않다. 유동저널리즘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심이 낮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는 어렵다. 의견중심기사는 이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갖는 시민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존재해야 한다. 그

러나 생산자 개인의 의견 '던져두기'에는 목소리의 주인인 시민과의 연결 또는 시민의 네트워크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유동저널리즘이 제공하는 상품과 시장은 이처럼 서로 연관성이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드러내기'나 '던져두기'의 위험성이다. 저널리즘의 의미는 대화에 있다(Carey, 1997).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1)은 대화를 통해 저널리즘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널리즘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해야 한다. 저널리즘이 제공하는 대화는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의 두 가지로 나뉜다. 슈드슨(Schudson, 1997)은 대화는 인식의 공유보다 문제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확산할 위험, 논의를 비약하거나 침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적 대화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공적 대화를 오도하거나 축소하는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단순정보제시나 의견중심기사가 갖는 '드러내기'나 '던져두기'는 사적대화의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대화의 정상적 작동을 왜곡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하겠다.

유동 저널리즘의 생산목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공공정책 포럼(Public Policy Forum, 2017)은 시스템 B가 내세우는 다양성 가치는 이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플랫폼과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분산플랫폼 환경의 권력을 집중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거대 미디어의 중재를 우회하는 탈중재화로 인해 동종의 집단들이 쉽게 결집할 수 있어 지배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집단간의 갈등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이슈가 정치화할 때는 동종집단 내부의 편견을 강화하고 토론의 폭을 좁히는 반민주적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즉 갈등이 생기면 하위집단들이 파편화하면서 분열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 4. 뉴스 생산방법의 조정메커니즘

생산방법	생산기제	생산조건	생산한계	조정기제
저널리스트중심	선택	자율성	주관성	간주관적 객관화통제
조직중심	구성	전략	상업성	대안 저널리즘/시민저널리즘
개인주의	표출	개방성	파편화	자기조직화 생태계 구축

요컨대 유동 저널리즘의 개인주의 생산방법은 전통저널리즘의 저널리스트중심 생산방법이나 조직중심 생산방법처럼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필요하다. 앞의 분석들을 정리한 〈표 4〉는 각 생산방법의 조정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저널리스트중심과 조직중심 생산방법의 조정기제를 살펴보았지만 이들 조정기제는 생산방법의 상위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저널리스트중심 생산방법의 문제는 개인 저널리스트의 상위영역인 조직에서, 조직중심 생산방법의 문제는 상위 영역인 사회에서 조정기제를 찾은 것이다. 유동 저널리즘의 조정기제도 같은 맥락에서 상위영역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유동 저널리즘의 '드러내기'와 '던져두기'의 문제는 탈조직적 개방생산에 따른 생산파편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파편화는 저널리즘의 책임소재를 없애버린다. 이를 해결하자면 파편화의 유동저널리즘과 책임소재가 분명한 다른 저널리즘을 공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동저널리즘과 다른 저널리즘들이 공존하면서 상호보완할 수 있는 상위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저널리즘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생태계는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향적으로 또는 반응적으로 행위하는 종들이 서식하는 느슨하게 연결된 영역군집들로 이루어진 환경을 말한다(Boley & Chang, 2007). 이는 다양하고 지역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잡성을 띠는 일종의 복잡계(complex system)이기도 하다. 생태계는 자기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응집력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시킨다(Mitleton-Kelley,

2003). 중앙통제나 지배적 행위자가 없는 상황에서 종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계가 작동하는 것은 이 덕분이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구성요소들 사이에 상호지지적 관계망의 형성이다(Anderson, 1999; Moore, 1996). 생태계 내부의 종들, 즉 개별 조직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런 관계망을 구축한다(Iansiti & Levien, 2004).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저널리스트중심, 조직중심, 개인주의 등의 생산방법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다. 유동저널리즘도 상업주의에 매몰된 조직중심 생산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전통적 생산방법의 의미가 점차 희석되어가고 있지만 완전히 대체되거나 폐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시스템 B는 기존의 제도권 저널리즘과 완전히 단절적인 것은 아니다. 시스템 B는 분산플랫폼을 통한 1차 노출에서는 소비자 개인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단계가 지나면 공적 이슈로의 진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스템 A를 통한 노출을 추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 A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이 심해진다. 시스템 A와의 관계유지가 중요한 것이다.

특정 생산방법이 지배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발생은 불가피하다. 전통 저널리즘이 저널리즘 생태계를 지배하던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 디지털 유동성의 저널리즘 환경은 생태계 작동을 지배하는 중앙통제 세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은 저널리즘이 하나의 생태계로서 자기조직화를 통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생산방법의 공존으로 저널리즘 생태계는 변화와 함께 상호보완을 통한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뉴스생산 방법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생산자, 생산방법, 생산목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유동 저널리즘은 전통적 생산방법과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있음을 파악했다. 첫째, 생산자의 변화다. 유동 저널리스트는 뉴스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존재한다. 생산자 개방성을 갖고 있다. 어느 경우든 조직중심적 위상에서 벗어나는 탈조직적 탈제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개인주의 속성으로 이어진다. 생산자 개방성을 통해 불확실성의 유동성을 반영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생산방법은 단순정보제시에 초점을 맞춘다. 자원중심의 생산에 효율적이며 이를 통해 깊이와 넓이가 아니라 얕고 좁은 단순한 정보와 의견중심의 뉴스를 생산한다. 이같은 낮은 수준의 생산은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셋째, 생산목표의 변화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목소리를 보여주는 '표출'을 목표로 삼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없는 뉴스, 즉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양성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첫째, 전통적인 뉴스생산은 분화와 융합의 긴장이 존재하는 역동적 프로세스라는 점이다. 저널리스트중심의 선택기반의 주관적 접근은 세계인식의 분화를 가져오지만 조직중심의 구성지향적 접근은 이런 분화현상을 융합하고자 한다. 양자의 긴장은 역동적 변화를 창출하는 필수적 긴장의 의미를 갖는다. 조직이 생산과정에서 보여주는 조정과 조화는 필수적 긴장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둘째, 디지털 유동저널리즘의 생산방법은 이런 긴장관계가 없는 일방향적 생산방법이라는 것이다. 유동저널리즘의 생산방법 역시 분화적 속성과 융합적 속성 사이의 긴장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분석결과를

놓고 보면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유동저널리즘은 불확실성의 유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를 탈조직, 탈제도의 차원에서 개방한다. 또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생산방법은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목표로 삼는다. 이 요소들은 '드러내기' '던져두기'의 의미만 갖고 있는 분화지향적 성격만 보여준다. 역동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융합적 속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유동저널리즘의 필수적 긴장관계 구성은 유동저널리즘의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유동저널리즘이 1차 노출 이후 공적 이슈로 진화하려는 단계에서는 시스템 A를 통한 노출을 추구하며 이의 관심끌기위한 경쟁이 심해진다. 이는 시스템 A가 시스템 B에 대해 융합적 요소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조정기제의 개념으로 유동저널리즘의 필수적 긴장을 설명하고자 했다. 기존의 저널리스트중심, 조직중심 생산방법 역시 한계를 갖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기제를 갖고 있다. 유동저널리즘의 조정기제는 시스템 A와의 공존이 가능한 환경, 즉 저널리즘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저널리즘 생태계에서 시스템 A와 유동저널리즘의 시스템 B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디지털 유동성 환경에서 전통적인 뉴스생산방법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고찰에서 보듯이 저널리즘 생태계가 제대로 구성된다면 전통적 생산방법과 유동저널리즘 등 다양한 생산방법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뉴스조직들이 새로운 저널리즘 생태계에 안에서 다양한 현상들과 필수적 긴장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때문에 뉴스조직들은 시스템 B가 전혀 새로운 생산방법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새로운 저널리즘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위상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사승 (2012). 취재현장과 뉴스룸 내부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방송학보〉, 26권 4호, 7~46.

김사승 (2017). 〈디지털 경계관리: 플랫폼 생태계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논리〉. 서울: 숭실대.

Anderson, C. W., Bell, E. & Shirky, C. (2012). *Post-Industrial Journalism: Adapting to the Prsent.* Tow Center for Digital Journalism, NY: Columbia Journalism School, [On-line] Available: http://towcenter.org/wp-content/uploads/2012/11/TOWCenter-Post_Industrial_Journalism.pdf

Anderson, P. (1999). Complexity Theory and Organization Science. *Organization Science, 10*(3), 216-232.

Baekdal, T. (2009). What the heck is social news, baekdal, [On-line] Available: http://www.baekdal.com/media/social-news-explained.)

Barzilai-Nahon, K. (2008). Toward a Theory of Network Gatekeeping: A Framework for Exploring Information Contro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and Technology*, *59*(9), 1483-1512.

Bass, A. Z. (1969). Refining the gatekeeper concept. *Journalism Quarterly*, *46,* 69-72.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Mass.: Polity.

Bauman, Z. (2007).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Cambridge, Mass.: Polity.

Bauman, Z. (2011). *Culture in a Liquid Modern World.* Cambridge, Mass.: Polity.

Boley, H. & Chang, E. (2007, February). *Digital ecosystems: Principles and semantics.* published at the 2007. Inaugural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Ecosystems and Technologies. Cairns, Australia.

Bolter, J. D. & Grusin, R. (2000). *Remediation :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Mass.: MIT Press.

Burns, L. S. (2002). *Understanding Journalism.* London: Sage.

Carey, J. (1997). James Carey: A Critical Reader. In E. S. Munson & C. A. Warren (Eds.), *Renewing a Deweyan Cultural Studies Project through Pragmatist Publics: Contributions from James Carey and Michael Foucault?* (pp. 270-291).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Castells, M. (2000). *Rise of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MA: Blackwell

Castells, M.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an-Olmsted, S. M. (2006). Issues in Strategic Management in Media Management Research. In A. B. Albarran, S. M. Chan-Olmsted, & M. O. Wirth (Eds.), *Handbook of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London: Routledge, 161-180.

Cohn, S. & Young, J. (1973). *The Manufacture of news : social problems, deviance and the mass media.* London: Constable.

Coleman, S. (2005). New mediation and direct representation: reconceptualizing representation in the digital age. *new media & society*, *17*(2), 177-198.

Crowston, K. (2003). A Taxonomy of Organizational Dependencies and Coordintion Mechanisms. In Thomas W. Malone, Kevin Crowston, & George A. Herman. *Organizing Business Knowledge: The MIT Process Handbook.* The MIT Press,

Chapter 3.

Deuze, M. (2005). What is journalism? Professional identity and ideology of journalists reconsidered. *Journalism, 6(4)*, 442-464.

Deuze, M. (2006a). Participation, Remediation, Bricolage: Considering Principal Components of a Digital Culture. *Information Society, 22*(2), 63-75.

Deuze, M. (2006b) Liquid journalism. Political Communication Repor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6(1)*, 〔On-line〕 Available: http://frank.mtsu.edu/~pcr/1601_2005_winter/roundtable_Deuze.htm

Deuze, M. (2007). *Media Work.* Cambridge, Mass.: Polity.

Ekström, M. (2002). Epistemologies of TV journalism: a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ism. 3*(3), 259-282.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Ta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Galtung, J. & Ruge, M. (1965). The structure of foreign news: The presentation of the Congo, Cuba and Cyprus crises in four foreign newspapers, *Journal of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1*, 64-69.

Giddens, A. (2002). *Runaway World.* London: Profile Books.

Gieber, W. (1964). News Is What Newspapermen Make It. In Lewis A. Dexter and David Manning White(Eds.), *People, Society and Mass Communications* (pp. 173-182). New York: Free Press.

Gitlin, T. (1978). Media Sociology: The Dominant Paradigm. *Theory and Society, 6*(2), 205-253.

Glasser, T. L.(1992). Professionalism and the Derision of Diversity:

The Case of the Education of Journalists. *Journal of Communication, 42*(2), 131-140.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105-117). Thousand Oaks, CA: Sage.

Habann, F. (2000). Management of Core Resources: The Case of Media Enterprises. *Journal of Media Management, 2*(1), 14-24.

Hallin, D. (1992) 'The Passing of the "High Modernism" of American Journalism'. *Journal of Communication, 42*(3), 14-25.

Hamilton, J. T. (2004). *All the News That's Fit To Sell: How the Market Transforms Information Into New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nnan, M. T. & Freeman, J. (1984). Structural Inertia and Organization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2), 149-164.

Hardt, H. (1998). *Interactions: Critical Studies in Communication, Media and Journalism.*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Hemmingway, E. (2004). The Silent Heart of News. *space & culture, 7*(4), 409-426.

Hiler, J. (2002). Are Bloggers Journalists? - On the rise of Amateur Journalism and the need for a Blogging Code of Ethics. *MICROCONTENT NEWS* [On-line] Available: http://www.microcontentnews.com/entries/20020411-637.htm.

Iansiti, M. & Levien, R. (2004). *The Keystone Advantage: What the New Dynamics of Business Ecosystems Mean for Strategy,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Boston, US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Jaakkola, M., Hellman, H., Koljonen, K. & Väaliverronen, J. (2015). LIQUID MODERN JOURNALISM WITH A DIFFERENCE The changing professional ethos of cultural journalism. *Journalism Practice, 9*(6), 811-828.

Janowitz, M. (1975). Professional models in journalism: The gatekeeper and the advocate. *Journalism Quarterly, 52*(4), 618-626, 662.

Kantola, A. (2013). From Gardeners to Revolutionaries: The Rise of the Liquid Ethos in Political Journalism. *Journalism, 14*(5), 606-626.

Karlsson, M. (2012). Charting the liquidity of online news: Moving towards a method for content analysis of online new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4*(4), 385-402.

Koljonen, K. (2013). The Shift from High to Liquid Ideals: Making Sense of Journalism and Its Change through a Multidimensional Model. *Nordicom Review, 33 (Special Issue December),* 141-154.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Y: Crown.

Lau, R. W. K. (2004). Critical realism and news production. *Media, Culture and Society, 26*(5), 693-711.

Lindén, Carl-Gustav (2017). Algorithms for journalism: the future of news work. *Journal of Media Innovations, 4*(1), 60-76.

Lowrey. W. & Woo, C. W. (2010). The news organizations in uncertain times: business or institu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7*(1), 41-61.

Malone, T. W. & Crowston, K. (2003). Interdisciplinary Study of Coordination . In Thomas W. Malone, Kevin Crowston, & George A. Herman, *Organizing Business Knowledge: The MIT Process Handbook*. The MIT Press, Chapter 2.

Manovich, L. (2001). *Language of New Media*. Cambridge, Mass.: MIT Press.

McNair, B. (1998). *The Sociology of Journalism.* London: Arnold.

McNair, B. (2003). From Control to Chaos: Towards a New Sociology of Journalism. *Media, Culture & Society, 25,* 547-555.

McNelly, J. T. (1959). Intermediary communicators in the international flow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36*(4), 23-26.

Meyer, P. (1991). *New Precision Journalism.* N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Mintzberg, H. (1989). *Mintzberg on Management: Inside our strange world of organizations*, Toronto: Free Press.

Mitleton-Kelly, E. (2003). Ten Principles of Complexity and Enabling Infrastructures. In Mitleton-Kelly, E. (Eds.), *Complex Systems and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Organizations: The Application of Complexity Theory to Organizations* (pp. 23-50). Amsterdam: Pergamon.

Moor, J. F. (1996).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 Strategy in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s*. New York: Harper Business.

Norris, P. (2000). *A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s in Post-Industrial Democracy*. Cambridge,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card, R. (2006). *Journalism, Value Creation and the Future of News Organizations.* Shorenstein Fellow Research Paper Series. Joan Shorenstein Center.

Picard, R. (2009). Why journalists deserve low pay. *CSMonitor.com*, May 19, [On-line] Available: www.csmonitor.com/2009/0519/p09s02-coop.html.

Pine II, J. & Gilmore, J. H. (1998).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97-105.

Polanyi, M. (1967). *The tacit dimens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ublic Policy Forum, (2017). *THE SHATTERED MIRROR: News, Democracy and Trust in the Digital Age.* [Online] Available: www.ppforum.ca.

Reca, A. A. (2006). Issues in Media Product Management in Media Management Research. In A. B. Albarran, S. M. Chan-Olmsted, & M. O. Wirth (Eds.), *Handbook of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pp. 181-201). London: Routledge.

Redmond, J. W. (2006). Issues in Human Relations Management. In A. B. Albarran, S. M. Chan-Olmsted, & M. O. Wirth (Eds.), *Handbook of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pp. 115-144). London: Routledge.

Reese, S. and Ballinger, J. (2001). The roots of a sociology of news: remembering Mr. Gates and social control in the newsroom.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78*(4), 641-658.

Rublescki, A. & Rocha Da Silva, A. (2012). Liquid Journalism: trends in amplification of the field. *Brazilian Journalism Research, 8*(1), 114-127.

Ryfe, D. (2003, Winter). Review of Bartholomew Sparrow, Uncertain guardians: The news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 *The Review of Communication* (an on-line journal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Ryfe, D. (2006). New institutionalism and the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23,* 135-144.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Schön, D. A. (1986).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New York, NY: Basic Books.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ew York: Basic Books.

Schudson, M. (1989). The sociology of news production. *Media, Culture and Society, 11,* 263-282.

Schudson, M. (1997). Why Conversation is Not the Soul of Democrac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4,* 297-309.

Shoemaker, P,. J. (1996). Media Gatekeeping. In Michael B. Salwen and Don W. Stacks(Eds.), *An Integrated Approach to Communication Theory and Research* (pp. 79-91), Mahwah, N.J.: Lawrence Erlbaum.

Sparrow, B. H. (1999). *Uncertain guardians: The news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Tierney, P. & Farmer, S. (2004). The Pygmalion process and employee creativity. *Journal of Management, 30,* 413-432.

Thomas, K. & Velthouse, B. (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666-681.

Tuchman, G. (1976). Telling Stories. *Journal of Communication, 26*(4), 93-97.

Tunstall, J. (1975). *Journalists at work: Specialist correspondents: Their news organizations, news sources, and competitor-colleagues* (Repr. ed.). Beverly Hills, Calif: Sage.

Turner, B. S. (2003). McDonaldization: Linearity and Liquidity in

consumer cultur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7*(2), 137-153.

Wall, M. (2005). Blog of war: Weblogs as news. *Journalism: Theories, Practices, & Criticism*, *6*(2), 153-172.

Weaver, D. H. & Wilhoit, G. C. (1986). *The American Journalis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Wijnhoven, F. (2001). Models of information markets: analysis of markets, identification of services. *Informing Science 4*(3), [Online] Available: http://inform.nu/Articles/Vol4/v4n4p117-128.pdf

Widholm, A. (2016). Tracing Online News in Motion: Time and Duration in the Study of Liquid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4*(1), 24-40.

White, D. M. (1950). The "Gatekeepers":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41*, 384-390.

투 고 일 자: 2019년 07월 15일

심 사 일 자: 2019년 08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08월 30일

Abstract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hange in methods of news production:

Liquid journalism and coordination mechanism

Sa Seo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dvertisement and PR,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is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change in news production methods based on documents analysis. To date, sociology of journalism has been studied through the prism of two opposing methods: a journalist-centred method against an organisation-centred method. The former focuses on journalistic 'selection' of news led to the argument of journalist's autonomy. The latter considers news production as a 'sociological construction', when seen through the organisational strategic approach. Liquid journalism is the third method that uses digital technology to develop a unique production method, which is related to non-linearity and individualism. It can be characterised as 'revealing' and 'presenting'. Each of the methods have their own limitations, requiring a coordinating mechanism. For the journalist-centred method, that mechanism is intersubjective objectification, and for the organisation-centred method, it is alternative journalism. This paper explores the construction of the journalistic ecosystem as coordination mechanism that allows for the balance between methods of liquid journalism and traditional journalism.

KEYWORDS sociology of journalism, production method, liquid journalism, selection, construction, presentation